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음 5월 28일) 제2085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을 기원… 함께 건배"

10일 진안군청 앞에서 2018 진안홍삼축제 D-100일을 맞아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다짐하는 '홍삼칵테일쇼'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잔을 들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전주의 첫 인상 '업그레이드'

시, 행안부 · 전북도 올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 선정

전주역 앞 마중길 · 전라감영길 주변 불량 간판 개선

전주시는 올해 행정자치부와 전북도가 실시한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전주역 앞 백제대로와 전라감영길 주변 상가의 노후·불량 간판 개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총 6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첫 마중길 주변 상가 55곳과 전라감영길 36곳의 노후·불량 간판 등 난립한 155여개의 간판을 전면 철거하고 대신,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 고유의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특색 있는 간판 100여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 공사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는 첫 마중길 1단계 간판개선사업을 마칠 계획이며 이어 나머지 2단계 구간도 내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로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내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신청한 상태로 오는 11월 선정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첫 마중길 상가의 모든 간판이 바뀔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시는 풍남문 주변 60여개 상가의 노후된 130여개의 간판을 교체하고 풍남문 로터리에서 완산경찰서까지의 130m 구간의 34개 점포의 간판을 개선한 바 있다.

김종엽 시 생태도시국장은 "첫마중길과 전라감영길 간판개선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만큼, 상가 점포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간판으로 정비해 누구나 찾고 싶은 전주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같이 일률적인 간판개선사업은 상가나 점포들이 특징을 잃고 간판이 획일화되어 찾기 힘들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송효철 기자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익산 17개 작은도서관, 이달 말부터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 작은도서관이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도내 공·사립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글마루작은도서관 등 관내 17개 작은도서관이 선정, 7월 말부터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글마루작은도서관 우리들의 수필여행 ▲깊은샘작은도서관 다문화소풍 ▲꿈드림작은도서관 나의 그이(나의 그림책 이야기) ▲낭산작은도서관 3.1운동, 아우내 함성을… ▲동산작은도서관 액티비티(Activity) 실버(Silver) ▲모현뜰작은도서관 동화랑 요리조리해 ▲배산작은도서관 시(詩)시(詩)락(樂)락(樂) ▲부송작은도서관 동화 속 책 놀이터 ▲삼성동어린이작은도서관 의사결정을 위한 논리놀이 등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다문화가정, 조부모가정, 장애원아, 저소득층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각양각색의 내용으로 기획,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익산시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는 문화소통의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바리스타 취업 꼭 이룰수 있기를"

노인일자리 창출 '꽃심방' 바리스타 교육장 오픈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에 '전주카페 꽃심방' 바리스타 교육장이 10일 문을 열었다.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조상진)에 국민연금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전주카페 꽃심방' 바리스타 교육장이 10일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김선규 국민연금공단 사회가치실현단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조희정 전주시지회 노인대학장과 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기념식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시에 2억8020만원의 성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하는 성금전달식을 가졌으며, 이어 교육장에서 현판식 등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6월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해 '전주시대 개막' 이후 전북지역과의 상생 및 동반발전을 위해 거액을 기부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바리스타 교육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20명씩 4차례에 걸쳐 80명을 교육하게 된다.

교육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며 기간은 이론 및 실기교육 1개월, 현장실습 6개월 등 총 7개월 코스로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한 60명을 최종 배출할 예정이며, 교육비는 무료, 교통비 식비 등도 제공한다.

김선규 국민연금공단 사회가치실현단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공단의 사회적가치실현으로 인식하고 그 실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노인일자리 창출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취업과 창업을 꼭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전주카페 꽃심방의 '꽃심'은 전주 출신인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서 따온 것으로 전주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효철 기자

산림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전북도, 완주 경천 · 순창 복흥에 산악기상관측소 추가 설치

전북도와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해발이 높은 산악지역 국유림내에 산악기상관측소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20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전북은 10개 시군에 1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완주 경천(가천)과 순창 복흥(서마) 국유림에 설치된다.

산악기상관측소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의 예측기술 고도화를 위해 강우량, 온도, 풍속 등 산림재해 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기상청 등에 자료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산악기상관측소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산림과학원, 기상청, 전북도 재난 예·경보 통합 시스템과 연계됨으로써 재난부서, 소방관서와 공유하여 각종 재해 대응에 활용된다.

한편, 전북도 양정기 산림녹지과장은 "산사태 등 재난발생 이전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산악기상시스템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인구보건복지협회, '제7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성료

전북도가 올해 인구주간을 맞아 1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에서 '제7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김희수 인구보건협회 전북지회장을 비롯해 공무원, 육아부모, 어린이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도내 저출산 극복에 노력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는 순창보건의료원 지방간호주사 권미경씨와 군산시 사회복지주사 박유진씨,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조경욱 연구위원, 전주 YWCA 박성희 부장 등 4명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뉴시스

매일 INDEX

2면 - 정부 "올해 을지연습 안한다"

3면 - 기무사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4면 - 유망 중기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